

2006 평신도 월례회 공과

# 세계감리교회와 함께 가는 평신도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 책을 사용하는 이에게

희망찬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150만 평신도 여러분의 계획과 목표가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평신도국에서는 매년 평신도들의 신앙생활과 선교활동에 유익하도록 평신도 월례공과를 발행해왔습니다. 책을 출판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무님과 집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좋은 내용을 다루어왔습니다. 평신도 월례공과는 사회평신도국의 주제와 정책방향에 따라서 집필하였으므로 내용면에서 체계적이며, 신앙생활과 연합활동에 유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신앙훈련 지침서로 손색이 없습니다.

사회평신도국은 2006년도 주제를 “세계감리교회와 함께 가는 평신도”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감리회가 세계감리교회 역사에 공헌할 수 있는 중요한 한해이기 때문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세계감리교회대회(World Methodist Conference)가 열리게 됩니다. 1881년 영국에서 시작한 세계감리교회대회는 124년의 역사에 132개 국, 74개 교파에서 5000명 이상이 5년마다 모이는 세계 최대의 대회입니다. 세계감리교회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된다는 것은 한국감리교회의 세계적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감리교회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국감리교회가 이번 대회를 통하여 세계감리교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계감리교회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감리교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감리교회 150만 평신도의 역량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세계감리교회대회를 통하여 여러 나라의 감리교회 장점도 배우고, 한국감리교회의 배가 운동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평신도 월례공과는 세계 각국의 감리교회 선교역사와 최근 세계 감리교회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공과를 통하여 세계의 웨슬리안들이 어떤 선교정책으로 웨슬리의 복음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자료집이 될 것입니다.

공과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계감리교회는 우리가 배워야 할 모범적인 나라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감리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가는 웨슬리안이 되도록 이 공과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0만 감리교인들의 선교활동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시대와 민족의 부름에 응답하고 세계의 웨슬리안들과 함께 복음전도열정을 나타내는데 도움이 되는 공과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한국감리교회를 기억하시고 훌륭한 원고를 집필해주신 케냐의 라위 이마튜 감독님, 나이지리아의 선데이 음방 감독님,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정희수 감독님, 아프리카 시온 감리교회(AMEZ) 메어리 러브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평신도국의 업무를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엄마리 총무님과 직원들, 그리고 편집위원 여러분들에게도 치하를 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기독교대한감리회 평신도들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사회평신도국 위원장 **윤연수** 감독

## 세계감리교회와 함께 가는 평신도

희망찬 새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은 7월에 세계감리교회대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공과주제를 “세계감리교회와 함께 가는 평신도”로 정하고 세계감리교회협의회에 속한 형제교회들에 대하여 배우는 기회를 갖도록 금년공과를 편집하였습니다. 물론 132개국 감리교회를 모두 다룰 수 없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2개국의 교단을 선정하였습니다.

제 1단원에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감리교회의 모체인 영국 감리교회와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 복음의 길을 열어준 미국 연합감리교회와 미국 내에서 급격한 부흥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감리교회 3개 교단을 실었고 제 2단원에서는 아프리카 감리교회 중에 가장 부흥되고 있는 3개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감리교회와 케냐 감리교회와 나이지리아 감리교회를 실었습니다. 제 3단원에서는 남미와 아시아, 즉 브라질 감리교회, 인도 감리교회, 싱가포르 감리교회를 실었고 제4단원에서는 아시아의 스리랑카 감리교회, 인도네시아 감리교회, 필리핀 감리교회를 실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어 사역하는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원고를 부탁하고 수합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집필진들이 적극 호응해 주어서 기한 내에 편집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집필자 중 케냐의 라위 이마투 감독님은 세계감리교회협의회 회장을 지내신 분이고, 나이지리아의 설테이 음방 감독님은

현재 세계감리교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를 집필하신 정희수 감독님은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북일리노이주 담당 감독님으로 모두 바쁘신 분들이지만 기쁘게 집필에 응해주셨습니다. 미국 내의 아프리카 감리교회 3교단을 집필하신 메어리 러브 박사님도 AMEZ 교단 일과 교수를 겸임하시며 바쁜 가운데도 시간 내시고 자료 수합하는 일에 특별한 정성을 기울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영국 감리교회를 집필해 주신 영등포중앙교회 김진두 목사님, 남아프리카공화국 감리교회와 인도 감리교회를 집필해 주신 기독교사회봉사회 총무이신 이상운 목사님, 각 나라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집필을 맡아주신 브라질 선교사이신 이성전 목사님, 싱가포르 선교사이신 최기득 목사님, 스리랑카 선교사이신 이성상 목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이신 김영주 목사님, 필리핀 선교사이신 이원식 목사님 모두에게 바쁘신 가운데 특별한 애정으로 옥고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 편집, 감수해 주신 정진권, 유영설, 김영동 목사님과 번역을 해주신 감리교신학대학교 박종천 교수님, 기독교사회봉사회 이상운 총무님, 이 분들의 특별한 사랑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과를 사용하는 남선교회, 청장년선교회를 비롯한 모든 회원님들의 가슴에 온 세상에 두루 퍼진 감리교회를 기억하고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세계감리교회를 소개하는 이 공과를 펴냅니다.

2005년 11월

사회평신도국 총무 **엄 마 리** 장로

# C·O·N·T·E·N·T·S

## 목 차

### 9 제 1 단원 ... 유럽 · 미국

- 11 1과 영국 감리교회 \_ 김진두 목사(영등포중앙교회 담임)
- 21 2과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_ 정희수 감독(UMC 북일리노이 연회)
- 29 3과 아프리카 감독교회, 아프리카 시온 감리교회, 기독교 감독 감리교회 \_  
메어리 러브 박사(Dr. Mary A. Love \_ 아프리카 시온 감리교회 교회학교교재 편집담당,  
후드신학대학 교수)

### 39 제 2 단원 ... 아프리카

- 41 4과 남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_ 이상운 목사(기독교사회봉사회 총무)
- 47 5과 동아프리카(케냐) \_ 라위 이마티우 감독(Lawi Imathiu\_WMC전회장, 케냐)
- 57 6과 서아프리카(나이지리아) \_ 선데이 음방 감독(Sunday Mbang\_WMC회장, 나이지리아)

### 63 제 3 단원 ... 남미 · 아시아

- 65 7과 남미(브라질) \_ 이성전 목사(브라질 선교사)
- 75 8과 인디아 \_ 이상운 목사(기독교사회봉사회 총무)
- 83 9과 싱가포르 \_ 최기득 목사(싱가포르 선교사)

### 91 제 4 단원 ... 아시아

- 93 10과 스리랑카 \_ 이성상 목사(스리랑카 선교사)
- 101 11과 인도네시아 \_ 김영주 목사(인도네시아 선교사)
- 109 12과 필리핀 \_ 이원식 목사(필리핀 선교사)



# 제 1 단원

## 유럽 · 미국

1과 영국 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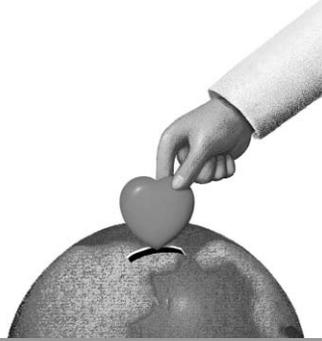
2과 미국 연합감리교회(The United Methodist Church)

3과 아프리카 감독교회(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아프리카 시온 감리교회(African Methodist Episcopal Zion Church)

기독교 감독 감리교회(Christi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 영국 감리교회



**목도** 다함께

**찬송** 372장 (나 말은 본분은)

**기도** 말은 이

**성경봉독** 누가복음 4:18-19

**요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 4:18-19)

**말씀증거** 사회자

## 1. 웨슬리 사후 영국 감리교회의 독립

1791년 3월 2일 88세에 존 웨슬리가 죽은 후에 감리교인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첫째는 영국 국교회로부터 완전히 독

립하여 이제 감리교회를 만들자는 그룹이었습니다. 둘째는 정반대로 감리교인들의 할 일은 다 끝났으니 이제 감리교 연합체를 해산하고 영국 국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룹이었습니다. 셋째는 둘 사이의 중간 입장을 취하는 그룹으로서 영국 국교회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감리교 전통을 계속 지켜나가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은 이러한 긴장관계 속에서 감리교 연합체가 유지되다가 1795년에 드디어 영국 국교회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감리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회가 독립하게 된 동기는 감리교 안에서 일어나는 요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영국 국교회의 핍박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감리교인들은 주일을 성수하였으며, 매주일 성찬에 반드시 참여하였는데, 영국 국교회 목사들이 감리교인에게는 성찬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감리교인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 갔습니다. 이때 감리교인들에게는 어디서 누구에게 성찬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감리교 지도자들은 감리교 설교자들에게 주일에 영국 국교회의 예배시간과 같은 시간에 주일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베풀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며, 이것은 감리교회가 독립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누가 과연 존 웨슬리의 후계자가 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일부 감리교인들은 영국 국교회처럼 감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감리교인들은 웨슬리의 평소의 가르침과 유언을 명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독제를 거부하고 총회에서

사회를 보고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총회의 의장제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웨슬리와 초기 감리교인들의 확신이었습니다. 감독제보다는 성령의 은사를 따라 행하는 평신도 중심의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우기를 더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 감리교회는 영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1784년에 토머스 코크와 프랜시스 애즈베리를 감리사(Superintendent)로 안수하여 보냈는데, 2년 후에 애즈베리 스스로 자신을 감독(Bishop)이라고 부르게 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이 소식을 듣고서 매우 분노하여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미국 감리교회는 감독제 감리교회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국 감리교회와 영국이 선교를 시작한 나라의 감리교회는 총회장(President of the Conference)을 두는 감리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와 미국이 설립한 나라의 감리교들은 감독제 감리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감리교회의 총회장제나 미국 감리교회의 감독이나 모두 목사를 파송하는 인사권과 목사를 훈련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감리교회와 학교와 기관을 비롯한 행정에서 있어서 최상위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감리교회와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 2. 초기의 분열과 통합

1795년 독립한 이래 영국 감리교회는 4개의 큰 그룹과 10개 이상의 작은 그룹으로 분열하다가 1932년에 하나의 감리교회로

통합하였습니다. 분열의 동기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교단의 지도력 부족이고, 또 하나는 총회장의 권한이 너무 크다는데 불만을 갖고서 감리교회가 더욱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나가기를 바라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요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리교회가 웨슬리 본래의 신앙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면서 본래의 웨슬리 신앙 전통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분열해 있던 시기에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각자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부터 교회 통합 운동이 일어나 큰 그룹들과 작은 그룹들이 합하여 드디어 1932년에는 하나의 감리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리교인들이 웨슬리의 교회일치와 협력을 소중히 여기고 강조하는 ‘공교회 정신’ (Catholic Spirit)을 잘 계승하여 실천한 것입니다. 하나의 감리교회로 통합되는 이 해가 영국 감리교회 역사상 가장 크고 힘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영국 감리교회는 영국에서 영국 국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로서의 위상을 차지하였으며, 영국 안에서 독립교회(Free Church)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 3. 영국 감리교회의 선교 · 교육 · 봉사 사역

영국 감리교회는 1760년대에 아메리카에 선교를 시작하여 약 200년 동안 5대양 6대주에 활발한 선교를 하였습니다. 국내 선교는 1960년까지 전국에 감리교회가 7500여개나 되는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영국 국교회 수와 거의 비슷한 엄청난 규모로 영국 전역에 마을마다 감리교회가 없는 곳이 없게 되었습

니다. 해외선교는 이미 1841년에 약 500명의 선교사를 세계로 파송하였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교구로 바라보았던(I look upon all the world as my parish.) 웨슬리의 선교정신을 이어받아 최대의 결과를 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본래부터 선교와 교육을 동시에 한 가지 일로 실천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초로 킹스우드 학교 건립을 시작으로 하여 계속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세워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감리교회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즉 가난한 노동자 계층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많이 세웠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직업학교와 간호학교를 많이 세우는 교육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특별히 북부 산업지대에는 거의 모든 지역의 감리교회들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가 적절한 지역 단위별로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산업지대의 감리교 학교들은 거지학교 또는 공장학교라는 별명으로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영국 감리교회는 성인교육에도 역사적인 공헌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중북부 산업지대에서는 모여드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사회교육이 긴급히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가나 사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감리교회가 이 일을 홀로 떠맡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엄두도 못 내고 있었지만 감리교회는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는 사회교육(평생교육)이 사실은 영국 감리교에서 시작하여 발전하였습니다. 중북부 산업지대의 감리교회들이 주일 학교를 주간학교(Day School)로 전환하여 교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의 주간학교 운동이 발전하여 영국에 수많은 초등학교가 설립된 것은 역사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영국 감리교회의 사회봉사는 영국 역사에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며,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웨슬리 때부터 감리교회에는 선교와 교육과 봉사가 하나였지 따로 구분되거나 차별되지 않았습니다. 감리교회는 곧 학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센터였습니다. 해외에 선교할 때에도 목사와 교육자와 의사가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일하는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감리교회는 도시에서도 주로 가난한 동네에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산업지대에 주로 감리교회가 많은 것도 가난한 소외 계층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국 감리교회는 고아사업, 집 없는 사람들 돕기, 노동조합운동, 절제운동, 감옥 죄수 돕기, 가난한 사람들 돕기, 병자 돕기를 전략적으로 해나갔습니다. 영국 감리교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사회사업인 ‘어린이집’ (National Children’s Home)은 한때 영국 고아의 약 90%를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해외 고아들을 돕는 데 가장 많은 일을 한 교회로도 기록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학교와 직업학교를 세워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나그네집’ 운동은 영국 감리교회가 웨슬리 때부터 도시와 산업지대에 세워 모든 나그네들을 가족같이 돌보는 박애운동이었습니다.

특기할만한 것은 감옥 죄수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 죄수 선교는 웨슬리와 초기 감리교인들의 중요한 전통으로 영국에서 제일 먼저 감옥 전담목사를 임명한 것도 감리교회였고, 출소자

들의 직업교육과 사회적응을 돕는 일을 책임적으로 해왔습니다. 영국 감리교회는 노동조합 운동을 시작하여 도시와 산업지대의 노동자들의 권익, 노동과 생활의 환경, 그리고 그들의 생활과 도덕 개혁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노동운동으로 발전했다는 것도 이미 잘 알려진 역사입니다. 18-19세기 영국의 노동조합운동의 지도자들은 거의 다 감리교인들이었으며, 산업지대의 공장에서 감리교 속회가 발전되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영국 감리교회의 사회봉사운동은 첫째로는 이웃 사랑의 운동, 즉 박애운동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국인의 생활방식과 도덕성을 개혁하는 민족개혁운동으로 승화되어 영국의 사회와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 **4. 현재의 영국 감리교회 : 하나의 감리교회 이후**

1932년에 하나의 감리교회로 통합을 이룰 때에는 모두가 감격했습니다. 이제까지 보다는 더 큰일을 할 것 같은 꿈에 부풀었지만 현실은 아주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몇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감리교회는 급속한 쇠퇴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감리교회는 다른 교회와 함께 유럽의 비평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1·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유럽인들의 상처와 실망감, 그리고 급속한 세속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영국에서 감리교회로서의 정체성 문제와 영국 국교회와의 관계가 급부상하면서 감리교회의 권위와 매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감리교회의 사명과 필요성에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교인 수는 해마다 몇 천 명씩, 또는 만 명 이상씩 줄어갔습니다. 감리교회는 힘을 잃어가면서 차츰 영국 국교회와 통합을 추진하는 대화를 하였습니다. 1960년부터 세 번에 걸쳐서 통합을 위한 회의를 갖고 최종 투표를 하였습니다. 평신도 편에서는 통과되었으나 영국 국교회의 감독회에서 부결되어서 결국 결렬되어 감리교회는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로 감리교회는 더욱 힘을 잃으며 교인들이 떠나가고 모든 면에서 가라앉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영국 국교회와 감리교회가 또 다시 통합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로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으며 갈 길은 아주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국 감리교회는 너무나 힘이 없어서 앞으로 10-20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학교에는 학생이 없어서 세속 사업가들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교회들도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교회를 하나로 합하고, 어떤 교회들은 부동산으로 팔고, 많은 교회들은 노인들에 의해서 가까스로 맥을 이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 5. 앞으로의 과제

영국에서 감리교회는 이와 같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살 길이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영국에는 6500 개에 달하는 감리교회가 있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감리교인

30만 명이 남아 있습니다. 5개의 신학교가 있으며 약 4000명의 목사들이 있고 수만 명의 평신도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는 무엇인가 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다시 성경을 붙들고 성경적(초대교회적) 초기 감리교회의 신앙을 회복하여 신앙의 부흥을 이루고 교회를 채우고 살려내야만 합니다. 문제는 아직 그러한 믿음과 사명감이 없다는 점입니다.

영국 감리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 선교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면 다시 일어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감리교회는 아직도 많은 학교와 사회봉사 기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국 감리교회가 텅 비어 그 생명이 끝난다면 이 많은 교회당과 학교와 자선기관들은 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영국 감리교회가 비록 숫자는 적더라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계속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한다면 주님은 그 교회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영국 북부 산업지대의 감리교회들은 처음 감리교회의 신앙을 되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간혹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작은 희망입니다.

더욱이 영국 감리교회는 세계의 모든 감리교회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귀한 역사와 전통과 유산을 지니고 있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명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물론 현재 영국 감리교회는 이러한 의식이 아주 약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교회들이 영국 감리교회를 깨우고 격려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은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한국 감리교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

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이  
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국과 세계의 감리교회를 돕는 일  
도 우리 한국 감리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을 갖고  
실행하는 것은 한국 감리교인들이 받은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 생각을 위한 질문

- 1) 영국 감리교회의 사회봉사 활동 중에 뛰어난 것들은 무엇입니까?
- 2) 영국 감리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찬 송**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

# 미국 연합감리교회

## (The United Methodist Church)



**목도** 다함께

**찬송** 280장 (생전에 우리가)

**기도** 맑은 이

**성경봉독** 요한복음 15:1-14

**요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말씀증거** 사회자

미국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오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원주민 신앙을 중심으로 농경과 유목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은 유럽과 스페인의 식민정책과 함께 많은 변화와 충격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로 유럽과 스페인계의 침략은 가톨릭과 청교도들의 이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새로운 이민의 흐름과 식민지 팽창이라는 역사적인 현상과 함께 미국대륙에 전파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의 흑인 노예들을 이주시켜 정착시킴으로 다인종 사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 정신은 초기 식민정책을 강화하는 정치적인 신념으로 발전되어 미국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개척정신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주었고 이것은 미국 종교사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문명의 발전은 노예해방과 흑백갈등, 그리고 원주민의 인권회복이라는 사회변화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해방을 위한 신앙운동은 교회사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03년에 하와이에 한인 이민이 처음 시작된 것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와 복합적인 인종사회에 한인들의 역사가 더하여 졌습니다.

미국의 감리교 역사는 존 웨슬리 목사가 미대륙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온 1730년대 후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무서워하지 않고, 죄 만을 부끄러워하며,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삶을 알고 헌신하는 백 명만 있으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열정적인 선교의 꿈이 영국에서 출발하여 미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미국의 감리교회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존 웨슬리 목사의 선교적 열정과 헌신에 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말 타고 전도하는 설교자 존 웨슬리의 영혼구원을 향한 열정은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완성에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웨슬리의 복음적인 전통에 근거한 교회론은 경건주의와 청교도주의 실천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통으로 되면서, 영국 성공회와 로마 가톨릭, 그리고 마틴 루터의 개혁주

의적인 전통 속에 살아있는 영적인 전통을 넓게 계승한 신앙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미국의 정치적인 발전 속에서 “교회 속의 교회 운동”으로 속회와 소그룹 운동을 통하여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적인 열정으로 사랑의 실천이 교리의 중심이 됩니다.

영국교회로부터 분리한 초기 감리교회 운동은 국가적 교회로부터 독립하여 신앙의 자유를 고취하였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감리교도들은 복음적 부흥운동에 의한 새로운 각성운동으로서 미국사회에 정착하였습니다.

연합감리교회(The United Methodist Church)는 1968년에 이루어진 감리교회(The Methodist Church)와 복음주의적 연합형제교회(Evangelical United Brethren Church)를 통하여 새로 태동하였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미국사회 정치역사의 변동을 반영하는 강력한 조직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교구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정체성은 예배와 간증, 그리고 복음적인 부흥과 선교를 통한 신앙운동에 교단의 정책과 입법을 아우르는 연합된 교회로서 미국과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입니다.

2004년 연합감리교회 성도의 수는 미국 내 840만, 그리고 아프리카와 유럽 및 필리핀에 240만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총회에서 아프리카 아이보리코스트의 120만 명이 편입되어 1200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60년에는 미국인 15명 중 1명이 연합감리교회 교인이었으나 2000년에는 29명 중

의 1명 꼴로 줄어들었습니다. 교인수의 감소 현상은 미국의 주요 교단 전체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교단의 정책들을 통해 교회개혁과 성장, 그리고 복음전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사명을 다하려는 새로운 신앙운동이 적극적인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많은 연회는 2004년 예배참석 인원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감독회의는 2004년에 “세상의 변혁을 위하여, 제자를 만드는 교회”라는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존 웨슬리의 신학과 정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문화와 탈 그리스도교 현상을 딛고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새롭게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권위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고백과 개혁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교리와 인종, 문화의 교차적인 현실에서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힘과 정성을 모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연합감리교회는 유기적인 선교공동체로서 연회와 총회를 통하여 치리하는 합리적인 교회입니다.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중산층의 교인들이 중심이 되고 있고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정책 결정과 신앙운동은 사회적인 성화를 감리교회의 특징으로 삼고 미국 전역에서 부흥되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고 말씀한 것처럼

럼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유기적 연결을 생명으로 삼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개체교회들이 연회를 중심으로 된 조직교회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교단선교의 중심으로 두고 공동선교 분담금을 중심으로 공동 살림을 실천합니다.

목회자 파송제도(Appointment System)는 감독의 직위와 권한으로 철저히 보장되어 있으며, 감리사를 통하여 유기적인 선교공동체를 강화하여 갑니다. 목회자의 최소 사례와 정년보장이라는 제도적인 위임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형제적인 공동체의 모델을 교단의 정치적인 특징으로 삼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부담금의 정직한 집행은 미국 내에 있는 교회가 조직교회로서의 권위와 능력 있는 선교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교회들이 최선을 다하여 거의 십일조에 해당하는 교회 예산을 총회와 연회 사업에 쓰도록 하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요 15:4)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중제도나 개체교회주의의 다양한 도전 속에서도 유기적인 몸을 이루기 위하여 연합감리교회는 지속적인 연합체와 그리스도인의 일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회이기에 여전히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실한 목회를 지원하는 순수한 순회파송제도(Itinerant System)는 초기 감리교회의 순례하는 전도자 상으로 시작된 복음선교의 기능이 목회자 파송이라는 제도로 정착되어 미국 개신

교에서는 유일한 제도로 고수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배경으로 한 사람들이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유기적인 교회 공동체로서의 정책이 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연합감리교회 내에 200명이 넘는 한인 목회자들이 미국 전역에서 미국인 교회에 파송되어 목회하고 있습니다. 한국 회중을 섬기는 4백 여 명의 교역자와 함께 연합감리교회를 통한 복음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한국인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복음의 권위에 초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웨슬리 정신이 연합감리교회의 선교의 방향과 정책이 됩니다. <교리와 장정>은 총회의 신학적 입장과 역사적인 발전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리논쟁과 신학적 다양성의 문제는 교회가 신속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다양성을 공유하려는 노력은 열린 논의와 기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서, 전통, 이성과 경험이라는 교리원칙을 중심으로 시대적인 요청과 현실적인 과제들을 마주하면서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리교인들은 끊임없는 각성과 대화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감리교회 운동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인 요청과 과제들을 유연하게 수용하는 역동성을 보여 왔습니다. 오늘날 연합감리교회는 합리적인 제도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교회 갱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자유주의라

는 양 진영의 갈등과 미국 사회의 정치적인 쟁점이 홍수처럼 몰려드는 현실은 거대한 교단이 중심을 잃게 되는 폭풍과도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합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철저하게 뿌리내리고 선교를 우선적인 교회실천의 과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룩함을 사회와 교회 현실에서 실천하는 신앙운동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신앙고백과 웨슬리 정신을 통하여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2:10)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세계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하는 일에 함께 하는 동반자적인 교회입니다. 신학적인 자산과 전통의 풍요로움을 겸허하게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과 함께 공유하고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사는 잃어버린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손길을 모을 수 있는 형제교회라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는 선교사를 보낸 모체가 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제 연합감리교회는 새로 열리는 세계선교의 장에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세계감리교회 형제자매들과 동역하는 동반자이기를 소원합니다.

## 생각을 위한 질문

- 1) 하나님은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인 간에 일치와 화해를 실천하도록 부르십니다. 이러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 2) 세계감리교회가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사역입니까?

찬 송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

# 아프리카 감독교회 아프리카 시온 감리교회 기독교 감독 감리교회



**목도** 다함께

**찬송**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기도** 맑은 이

**성경봉독** 예레미야 33:6-9

**요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푸는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푸는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렘 33:9)

**말씀증거** 사회자

## 1. 아프리카 감독교회(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아프리카 감독교회는 1787년에 리처드 알렌이 설립한 자유 아프리카 신도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알렌은 노예였으나 스스

로 노력하여 자유인이 된 후 감리교 목사가 되었으며 프랜시스 애즈베리와 교류했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에 있는 성 조지 감리교회에서 알렌과 그의 동료들은 예배 시에 인종적 불평등과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알렌으로 하여금 감리교회의 새 분파를 시작하게 했던 동기였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베델 아프리카 감독교회가 1794년에 아프리카 감독교회의 기치아래 세워진 첫 건물(원래 대장간)이었습니다. 이 회중은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이 자립을 지지하기까지는 백인들의 치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리처드 알렌은 타고난 지도자로서 베델교회의 초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1816년에 흑인 감리교인들이 함께 모여 교파를 시작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알렌이 첫 감독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교단은 성장하여 현재 남북미주, 칼리비안, 아프리카와 유럽에 퍼져있습니다. 1880년에 교인 수가 40만 명이 되었습니다. 북미에서 교회성장은 1891년에 서아프리카로, 1896년에 남아프리카로 확산되었습니다. 오늘날 30개국에 교인 수는 200여만 명, 목회자 수 8천여 명, 교회 수는 7천개를 헤아립니다.

아프리카 감독교회는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인 차이가 아니라 사회학적인 이유로 형성된 최초의 교파입니다. 이 교단은 감리교의 기본교리와 감독제를 채택했습니다. 교단은 20개의 연회로 분할되어 연회마다 감독이 치리합니다. 이원화된 안수과정(준회원과 정회원)으로 파송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감독교회는 여러 중·고등학교, 단과대학교, 종합대

학교, 신학대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교단의 가장 우수한 교육기관은 오하이오주에 있는 월버포스 대학교(1856년에 설립, 1863년부터 지원)입니다. 이 학교는 미국에서 흑인을 위한 제일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입니다. 다른 교육기관들로는 알렌 대학교(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콜롬비아), 디커슨 신학대학교(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콜롬비아), 에드워드 워터스 대학교(플로리다주 잭슨빌), 모리스 브라운 대학교(조지아주 애틀랜타), 폴 쿤 대학교(텍사스주 달라스), 페인 신학대학교(오하이오주 월버포스), 쇼터 대학교(아칸소주 리틀락), 터너 신학대학교(조지아주 애틀랜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학교들로는 몬로비아 대학교(라이베리아, 몬로비아), 알 알 라이트 신학대학교(남아공화국), 시엔 학교(짐바브웨, 블라웨요), 그리고 아프리카 감독교회 대학교(라이베리아, 몬로비아)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감독교회 회원들은 변화, 평등, 정의 그리고 차별의 종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합니다. 이러한 사회 참여는 교역자와 평신도를 포함하여 사회적 문제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단은 시작부터 전 세계의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위한 시민권, 해방과 화해의 전쟁터에 뛰어 들었습니다. 이 교단의 우수한 회원들로는 다니엘 페인, 헨리 맥닐 터너, 터커 테너, 모리스 브라운, 로사 팩스 그리고 제임스 콘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은사는 이 교단의 유산 중의 일부입니다. 리처드 알렌 감독은 1817년 자레나 리 여사에게 설교권을 수여했습니다. 사라 휴는 1885년에 헨리 터너로부터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성들은 현재 목회자, 정회원 목사, 감독들로 섬기고 있습니다. 와

스디 맥켄지 감독은 2000년에 최초의 여성 감독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 다른 여성, 캐롤린 타일러 귀드리 감독과 사라 프랜시스 데이비스 감독은 2004년에 선출되었습니다. 9명의 임원들이 교단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교단의 부서는 역사자료연구, 아프리카 감독교회 장학기금, 재정, 총무, 교회학교연합, 세계선교와 목회, 고용자 안보, 기독교 교육, 교회성장과 발전, 기독교 리코더를 포괄합니다. 총회는 최고의 행정 및 입법 기구이며 매 4년마다 모입니다. 평신도 연합조직은 현재 제시 번스 주니어 씨가 이끌고 있으며, 여선교회의 지도자는 제미시나 에번스 여사입니다.

아프리카 감독교회의 초교파적인 활동으로는 미국교회협의회, 세계감리교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 감리교여성세계연맹, 범 감리교협력과 연합위원회, 교회여성연합, 미국성서공회의 회원입니다. 아프리카 감독교회의 사명은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과 행위를 통해 확산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영적, 지적, 육체적, 정서적 그리고 환경적 필요를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이 교단의 선교표어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자, 인간은 우리 형제”(God our Father, Christ our Redeemer, Man our Brother)입니다. 정기 간행물로는 기독교 리코더, 아프리카 감독교회 리뷰, 선교의 소리, 종교교육, 선교잡지, 와이 피 디 매거진,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 2. 아프리카 시온 감리교회(African Methodist Episcopal Zion Church)

아프리카 시온 감리교회는 1796년에 정식으로 조직되었습니다

다. 이 교단은 뉴욕에 있는 요한 연합감리교회로부터 독립한 교파입니다. 요한 교회의 인종 차별과 예배의 제한, 그리고 불의로 인해 1795년에 유색인들은 프랜시스 애즈베리 감독의 지도 하에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제임스 베릭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으며, 1796년에 자립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뉴욕의 크로스가에 있는 한 집에서 아프리카 시온 감리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교회는 시온 예배당을 세웠는데, 이 곳은 나중에 시온 감리교단의 모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교회는 1925년 이후부터 할렘의 서137번가에 있었습니다. 독립 운동은 예배의 자유와 존엄성을 실현하게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의 치욕과 억압을 종식시켰습니다. 이 새 교파의 구성원들은 감리교회의 교리, 장정 그리고 정책을 준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굴종에서 불러내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널로 그들을 선택했음을 믿었습니다. 이 교파는 '자유교회'라 알려졌고, 교파의 지도자들로는 프레데릭 더글러스, 해리엇 터먼, 서저너 투르스, 엘리자 매 가드너, 캐더린 해리스 등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선교는 복음을 전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정의와 평등을 위한 투쟁을 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월터스 감독은 1909년에 결성된 유색인들의 진보를 위한 전국 협의회 설립자들 중 한사람입니다. 스테판 스폫스우드 감독은 전미흑인인권연맹(NAACP) 이사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이 교파는 미국교회협의회, 세계감리교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 감리교여성세계연맹, 범 감리교협력과 연합위

원회, 교회여성연합, 미국성서공회의 회원입니다. 이 교회는 기독교 감독감리교회와 연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중시하는 이 교회는 출범 때부터 여러 학교들을 설립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학교들로는 리빙스톤 대학교(뉴욕주 셀리스베리), 후드 신학대학교(뉴욕주 셀리스베리), 클린턴 초급대학교(사우스캐롤라이나주 락힐), 로맥스 해논 성서대학교(앨라배마주 그린빌)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아프리카 시온 감리교회 시온 전문대학교(라이베리아)와 후드 스피크 신학대학교(나이지리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시온 감리교회의 목회는 구성원들만큼이나 다양합니다. 그 예로써 저소득층 주택 제공, 노인들을 위한 주택 제공과 목회, 마약중독자 치유, 지역과 민중을 위한 탁아와 기타 목회를 들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교단의 구성원들은 정부의 여러 분야에 간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학협회의 회장인 산드라 갓슨 박사가 아프리카 시온 감리교회의 회원입니다.

현재 이 교회는 미국, 버지니아 아일랜드, 바하마, 영국, 기야나, 가나, 인도, 자메이카,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그리고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퍼져 있습니다. 사역지는 12개의 연회로 구성되며, 연회마다 감독이 처리합니다. 준회원과 정회원의 안수과정과 순회목회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12명의 임원들이 교단의 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총회는 교단의 최고 행정 및 입법 기관으로 매 4년마다 열리며 재판위원회도 교단 구조의 일부입니다. 교단의 부서는 기록과 연구, 전도, 재정, 편집자 시온의 별, 계간/역사연구, 교회학교교재, 기독교교육, 교

회성장, 해외선교, 은급, 구제, 의료, 사회참여,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배치되어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현재 데이빗 아이킨 씨가 회장으로 있는 연합평신도협의회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바바라 쇼 여사가 회장으로 일하는 국내의 여성교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시온감리교회는 1865년에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시행한 최초의 교단입니다. 그리고 이 교단의 첫 번째 여성 총회장은 1976년에 선출되었습니다. 교단 기관지로는 시온의 별, 계간 소식, 교회학교 헤럴드, 선교적 선견자, 비전 포커스가 있습니다.

### 3. 기독교 감독 감리교회(Christi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1870년 12월 16일 기독교 감독 감리교회가 테네시주의 잭슨빌에서 유색인종 감리교회로서 최초로 조직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처음 회원들은 과거 노예들로서 남감리교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노예해방은 그들의 과거 노예 소유주들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교파를 형성하려는 열망을 낳았습니다. 그리하여 1860년과 1870년의 남감리교회 총회는 재산의 이전을 위시하여 새로운 교파 설립을 위한 모든 법적 실제적 수단을 정비했습니다. 설교자들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안수 받았고, 5개 연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특별 총회가 1870년 12월에 41명이 모여 개최되었고, 윌리엄 헨리 마일스와 리처드 밴더호이스트가 유색인종 감리교회의 첫 감독들로 선출되어 남감리교회의 로버트 페인 감독에 의해 안수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7만 8천명의 회원으로

로 시작했습니다. ‘유색’이라는 용어와 결부된 낙인으로 인하여 교파는 명칭을 1954년에 기독교 감독 감리교회로 바꾸었습니다. 어머니 자유교회가 이 교파의 역사적 첫 교회이고 이 교파가 시작된 장소인 테네시주의 잭슨에 있습니다.

흑인 감리교회의 가장 젊은 교회로서 기독교 감독 감리교회는 감리교회의 기본적인 특성을 채택했습니다. 이 교회는 감독제로 운영되며 10개의 연회로 구성되었고 각 연회마다 감독이 치리합니다. 총회는 최고 의결 기구이며 매 4년마다 모입니다.

기독교 감독 감리교회는 여러 대학교와 신학대학을 지원합니다. 그 학교들은 레인 대학교(테네시주 잭슨), 마일스 대학교(앨라배마주 버밍햄), 페인 대학교(조지아주 어거스타), 텍사스 대학교(텍사스주 타일러), 필리스 신학대학교(조지아주 애틀랜타)입니다.

현재 기독교 감독 감리교회는 미국, 가나, 자메이카,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에 88만 6천명의 회원과 3천여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10개의 연회는 34개의 지방으로 구성되었으며, 재판위원회도 있습니다. 교단의 부서는 기독교교육, 평신도, 전도, 선교, 복지, 재정, 출판, 인사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제는 ‘교회의 생존에서 부흥과 갱신에 다시 초점 맞추기’입니다. 기독교 감독 감리교회의 전체 프로그램의 기획과 평가를 4개의 위원회가 책임집니다. 이들은 신앙과 직제 위원회, 삶과 증언 위원회, 사회정의와 인간복지 위원회 및 에큐메니칼 위원회입니다. 여선교회는 선교 사역 기구이며 엘노라 햅 여사가 회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카펠 커큰돌 씨는 현재 기독교 감

독 감리교회 평신도국의 의장입니다. 기독교 감독 감리교회의 정기 간행물은 기독교 인텍스, 선교사 메신저가 있습니다.

이 교단은 남감리교회와의 인종간 협력과 함께 시작했듯이 인종간의 조화를 자부합니다. 이 교단은 민권운동에 시작부터 참여했습니다. 감독들이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을 이끌고 워싱턴 대행진과 멤피스의 쓰레기 스트라이크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차별을 항거하는 농성에도 참여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이 교단은 미국교회협의회, 세계감리교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 감리교여성세계연맹, 범 감리교 협력과 연합위원회, 교회여성연합, 미국성서공회의 회원입니다. 이 교단은 아프리카 시온 감리교회와의 연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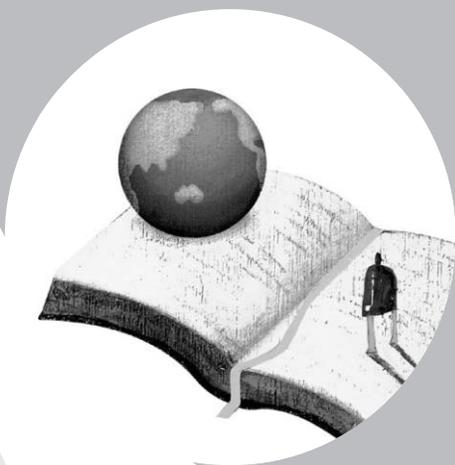
### 생각을 위한 질문

- 1) 교회가 복음의 실천을 위해 관심 가져야 할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 함께 연대할 세력의 범위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 2) 아프리카 감리교회들은 갈등으로 분열하였으나 여전히 감리교회의 교리와 직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아봅시다.

**찬 송** 521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



## 제 2 단원

### 아프리카

4과 남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5과 동아프리카(케냐)

6과 서아프리카(나이지리아)



## 남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목도** 다함께

**찬송**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기도** 맑은 이

**성경봉독** 이사야 60:1-2

**요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말씀증거** 사회자

남아프리카 감리교는 1806년 영국 주둔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식 선교는 10년이 지난 1816년에 바나바 쇼가 나마qual랜드(Namaqualand)의 코히에 있는 렐리폰테인(Leliefontein)에서 감리교 선교센터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북부지역인 나미비아까지 활동 반경을 넓혀나갔습니다.

1820년 윌리엄 쇼(바나바 쇼와 무관함)는 유럽 정착민들, 특히 영국 정착촌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정착촌 알바니아에서 선교센터를 만들고 일을 시작한 그는 케이프 콜로니아와 나탈(Natal) 지역으로 활동 반경을 넓혔습니다. 고탕(Gauteng)에서부터 로데지아의 림포포까지 이어지는 금광지역을 상대로 하는 선교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883년 남아프리카 웨슬리 감리교회는 6개의 지방회를 가지고 선교연회를 조직하였으며, 이것을 발전시켜서 1927년에는 독립연회가 되었습니다. 1931년에는 트란스바알 지역까지 확대된 연회를 구축하였고 영국연회를 포함하여 프리미티프 감리교회까지 흡수하며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보츠와나,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스와질란드 등 6개국을 포함하는 남아프리카 감리교회(The Methodist Church of Southern Africa)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는 남아프리카의 모든 지역에 퍼졌으며 모든 공동체의 부문으로부터 회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급진적이지 않으나, 지배적인 사회적 관습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관습의 진실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6세기 유럽인들이 희망봉을 돌아 인디아로 나가는 전초기지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네덜란드인과 독일인들이 주축이 되어 남아프리카를 개척하였는데 이들이 현지 흑인들과 인디아인들을 함께 지배하면서 독특한 남아프리카 문화를 창출하였습니다. 남아프리카 대륙은 유럽인들이 살기에 적당한 기온과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영국인들이 진출하

면서 국제적인 분쟁으로 확산되는 남아프리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프리카 신생국들이 앞 다투어 독립하고 있을 때 남아프리카는 소수 백인정권을 출범시켜서 흑인들을 탄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4500만 인구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흑인들을 자극하여 흑백분리정책에 대항하는 거대한 역사적 격변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는 치열한 인종차별 투쟁을 거치면서 내란의 위기까지 내몰렸습니다. 90년대 초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루하게 계속되어온 흑백 인종철폐 투쟁을 종식하고 흑인민간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마침내 모든 갈등을 딛고 1991년에는 백인 소수정권을 물러가게 하고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오르는 극적인 대반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흑백 인종차별로 무수한 인권이 유린되고 탄압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화해와 진실위원회를 꾸려가면서 흑인 민주정부가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화의 격변 속에서도 만델라는 흑인 경제를 탄탄대로에 올려놓는 흑백 균형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흑인 해방운동의 중심적 인물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1991년 흑백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하고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에 성공하게 되는데 그는 바로 감리교 출신입니다. 흑백 인종분리정책이라는 잔인한 인종차별과 인권유린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민주국가로 거듭나고 세계감리교회가 수여하는 평화상을 수상한 넬슨 만델라는 감리교인으로 우리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인물입

니다.

1910년 남아프리카 연합이 결성되면서 흑인 독립운동이 첫발을 내딛은 이후 1961년 소수 백인정권이 탄생하였습니다. 그 후 1984년 흑백 인종분리정책이 공식화하여 투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무장투쟁이나, 비폭력 평화투쟁이나를 놓고 기독교인들의 양심을 괴롭혔던 아프리카 해방운동은 결국 남아프리카 국민회의(ANC)가 무장 독립·투쟁이라는 정책으로 소수 백인정권과 맞서 싸우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60년대 남아프리카 최고의 흑인 노동운동 지도자인 스티브 비코가 무참히 살해당하였습니다. 이어서 요하네스버그의 스웨토에서 대규모 흑인 살상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흑인 인권운동은 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흑인 해방신학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민중해방신학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세계교회협의회(WCC)를 움직였습니다. 흑인들의 신학과 행동은 성령충만과 역사의식이 하나 됨으로써 인종갈등을 딛고 일어서는 인종화합의 세계관을 잉태시켰습니다.

남아프리카 감리교회는 1948년 아프리카 교회를 대표해서 암스테르담에서 결성된 세계교회협의회 창립총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또 7,80년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양심을 대표하는 인권투쟁에 감리교회의 자부심을 내놓고 죽음으로써 증언하고 투쟁하였습니다. 모든 선교활동에 남아프리카 감리교회는 6개국을 대표해서 하나 된 감리교신앙을 드러내놓고 활동하였으며 세계감리교협의회(WMC) 운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210여만 명의 남아프리카 감리교회의 사명선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들음과 변화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의 비전 선언문은 ‘민족들의 치유를 위한 그리스도에 의해 치유된 아프리카’입니다. 남아프리카 감리교회의 사업으로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유아교육 목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목회, 호스피스 목회, 감옥 선교, 에이즈 목회, 빈곤을 완화시키는 프로그램 등입니다. 세계감리교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 아프리카 교회협의회, 남아프리카 교회협의회, 교회연합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남아프리카와 전 세계에서 다른 기독교회들과 관계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현지에서 느끼는 감리교회의 신앙정신은 성령충만하고 역사의식이 있는 의로운 신앙공동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향은 양자간의 갈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다른 나라 감리교회에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특유의 만만디 정신과 분파주의적 부족의식은 아프리카 내부사회를 분열과 갈등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의 감리교회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 생각을 위한 질문

- 1) 남아프리카 감리교회는 인종차별이라는 사회문제 가운데서 성장하였습니다. 문화와 신념이 다른 계층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봅시다.
- 2) 넬슨 만델라가 감리교인이라는 것은 남아프리카 감리교회의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찬 송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

## 동아프리카(케냐)



**목 도** 다함께

**찬 송**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기 도** 맑은 이

**성경봉독** 마태복음 28:19-20

**요 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말씀증거** 사회자

### 1. 국가개요

케냐는 1963년 12월 영국의 오랜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였습니다. 인구는 3163만 명에 영토는 58만 평방킬로미터이

며, 아프리카에서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를 가장 잘 갖춘 나라입니다. 동아프리카 최대의 항구도시인 몸바사와 킬리만자로산은 케냐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지금도 몸바사 항에서 출발하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아프리카 중부 내륙지방인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는 쾌적한 기후조건과 인구집중으로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찍이 18세기에 유럽인들이 진출해 개척한 수많은 농장과 사파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6세기부터 아프리카인들을 괴롭혀온 아랍인들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케냐는 키쿠유족이 21%, 루야족 14%, 누오족 13%, 캄바족 11%, 카이시족 6%, 메루족 5%이며, 마사이족은 그중에 가장 수가 적은 부족입니다. 이렇듯 다인종 국가인 케냐에는 개신교가 40%로 가장 많고, 가톨릭이 30%며, 나머지는 전통종교입니다. 공용어는 영어이고 스와힐리어가 대부분 통하는데 40여 개의 방언도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케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58세 정도입니다.

## 2. 케냐 감리교 선교 역사

세계 감리교인들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케냐에 온 첫 선교사는 영국 성공회가 1842년에 몸바사로 파송한 독일 루터교인 루트빅 크라프트입니다. 그는 몸바사 언덕에 있는 라백(Rabac)에서 첫 선교를 시작했으나 10년 후에 질병이 생겨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러나 또 다시 10년 후 그의 마음은 선교 열정으로 불탔기에 3명의 자유 독립 감리교도들을 대동하여 다시 케냐로 돌아왔습니다.

케냐 사람들은 1862년에 그 당시 ‘검은 대륙 아프리카’로 부르던 때 자기들이 가진 것과 아는 것을 모두 버리고 찾아온 성령 충만했던 선교사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낯선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케냐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의료와 교육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케냐어를 최초로 문자로 썼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성경을 케냐어로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침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서양인들에게 매혹적이면서 동시에 두려운 곳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프리카의 시바 여왕을 만났습니다. 아프리카는 여러 가지로 풍요로운 곳이며, 이집트가 풍부한 역사를 가진 것이 그 한 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에덴 동산은 아프리카에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륙은 지금 서양인들에게 위협적인 말라리아 같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로 아프리카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서양인들과 아랍인들에 의해 식민지로 쪼개지고 지배당한 곳입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아프리카의 유산과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오늘날 전 세계로 이민 가서 살고 있습니다.

케냐 감리교회의 선교역사에 있어서 기억해야할만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초기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맺은 협정에 의하여 감리교는 메루(Meru) 지역을 배당받았습니다. 메루는 적도에 걸쳐 있으면서 해발 1500미터가 넘는 고지대로서 적당한 기후에 화산 토양에 맞는 커피를 재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메루는 케냐산(Mount Kenya)을 중심으로 발달된 지역으로서 인구는 130만 명입니다. 메루는 상업과 농업, 그리고 교육도시로서 5개가 넘는 은행이 있고, 호텔과 시장이 발달한 중심 도시입니다. 주생산물로는 차와 커피, 목재, 가축과 우유제품을 꼽을 수 있으며 사범대학교와 감리교대학교가 있어서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메루는 케냐 감리교회의 주류 부족으로서 메루 출신 인물들을 대거 배출해왔습니다. 세계감리교협의회 전임회장이며, 케냐 감리교회의 감독이었던 라위 이마튜 박사를 포함하여 현직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인 사무엘 코비아 박사가 메루 출신입니다. 메루는 수도 나이로비에서 북동쪽 케냐산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부족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지난 1997년 케냐 감리교회가 메루에 아프리카 감리교대학교를 세웠습니다. 현재 8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2001년부터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는 현재 케냐의 10대 대학 중 하나로 꼽히는 명문 대학교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여선교회전국연합회가 이들을 도와 처음 대학이 설립될 때 200여 명을 수용하는 현대식 기숙사를 건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란교회가 채플을 건축했으며, 최근에는 전

통음악학교를 몇 사람의 평신도들이 짓도록 돕고 있는데 2006년 2월에 봉헌할 계획입니다. 메루족들은 아주 명민하고 활달한 부족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선교부는 이곳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경영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문맹퇴치 운동을 벌여 글을 가르쳐줌으로 주민의 절반이상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1993년 11월 22일 케냐 감리교회 본부에서 한국의 표용은 감독회장과 케냐의 담부리(Zablon Nthamburi) 감독 사이에 한국-케냐 감리교회의 선교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양국은 선교동역자로서의 선교협력을 위해 한국 감리교회는 케냐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동북 아프리카 선교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수많은 내방객들과 선교사들이 마사이족을 상대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예배당과 학교를 세우며 마사이족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 3. 케냐 감리교회의 선교정책

세계감리교협의회는 1986년 아프리카 케냐 감독(라위 이마튜)을 세계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이는 미국, 영국에서만 회장이 선출되었던 역사를 깬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케냐 사람인 세계회장은 세계감리교협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남아프리카 정부에 가서 인종차별은 종식되어야 하며 평화적인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표단은 국민을 억압하는 정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라는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출신 회장이 세계감리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감리교회는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감리교인들이 영적 자원으로 모든 교회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프리카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는 힘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케냐 감리교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정신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눅 4:18-19).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갇힌 자에 대한 해석은 정치적으로 속박된 사람들과 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평화스럽게 살지 못하는 식구들도 포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는 목회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케냐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한 나라의 정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정치는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이며 좋은 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케냐 감리교회는 훌륭한 정치 개혁을 위해 케냐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케냐 감리교회는 교육이 나라의 영적, 경제적 복지를 이룩하는데 핵심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위시하여 교육현장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의 감리교인들이 케냐 감리교회가 중요하게 여기고 펼치는 선교정책을 돕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육을

필요로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으며, 좋은 교육은 그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찾아 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케냐 감리교회는 지속적으로 일할 것입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1971년에 열렸던 세계감리교대회 이후 웨슬리 전통을 가진 감리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부르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자신들의 교회를 ‘새 세계선교’를 위해 열었습니다. 세계감리교협의회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감리교 전도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감리교인들로 하여금 비록 여러 교파들이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치 아래 존 웨슬리의 전통을 공유한다는 것에 눈 뜨게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세계적 교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강한 교회들은 아프리카에 하나님 나라를 수립하는 선교를 위해 자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다양한 지위의 사람들, 곧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잘 교육받은 자와 지혜로운 자, 다양한 인종을 제자로 부르시나, 인류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감리교인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2006년 한국에 전 세계 감리교인들이 모이는 것은 세계감리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전세계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민중의 사회복지에 대해 눈이 멀거나 귀가 먹은 교회는 참된 현실을 놓쳐 버립니다.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의 고난,

고통, 기쁨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육체가 없는 영혼은 없습니다.” 육체 없이 영혼만 섬기려는 사람들은 제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경제, 정치적 정의 그리고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렸을 때 네가 먹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네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를 영접했고, 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보았다. … 네가 내 가족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마 25:35-40)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리교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사명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케냐 감리교회가 당면한 도전이며 성취하려는 사명입니다.

아프리카에 온 첫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농업, 의료사업을 통하여 선교를 했습니다. 웨슬리 전통의 감리교회는 오늘날 분열된 세계와 소수의 이기적인 지도자들에 의해 고난 받는 세계를 볼 때, 기후 악화로 인한 기근으로 황폐화된 사람들을 볼 때, 인간이 만들어낸 공포 정치로 세계의 일부를 방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때, 우리는 잠자코 앉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인간의 고난을 덜어 주는 행위가 없는 찬양만으로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제도화된 교회 내에서 갈등과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감리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들은 우리가 한 몸이며 한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우리는 분열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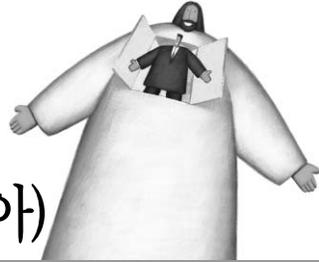
### 생각을 위한 질문

- 1) 케냐가 많은 침략으로 잃어버린 문화적 전통과 역사를 회복하도록 돕는 선교를 어떻게 시도할지 생각해 봅시다.
- 2) 케냐가 아프리카 감리교회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찬 송**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



## 서아프리카(나이지리아)

**목도** 다함께

**찬송** 273장 (저 북방 얼음산과)

**기도** 맑은 이

**성경봉독** 마태복음 6:33-34

**요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말씀증거** 사회자

### 1. 국가개요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서부지역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최근에 나이지리아는 여섯 개의 자치구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나이지리아에는 700여 부족이 있고 약 300여 개의 방언이 있습니다. 그중에 소수의 언어만 학교에서 가르치며, 공통어는 영어인

데 그 이유는 나이지리아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동부, 서부, 북부, 그리고 소수의 남부로 분할 통치되던 나이지리아는 1960년 10월 1일 독립하면서 동시에 통합되었습니다. 독립 이후에 나이지리아는 오랫동안 군부통치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독립한 후에도 분쟁에 휘말려 70년대는 비아프라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잃은 나이지리아는 지금도 이슬람-기독교 간의 종교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999년 5월에 민주적으로 수립된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주국가로 거듭났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이지만 국가경제는 빈부격차가 심해 국민소득은 900달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는 1억 4000만 명에 육박하고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4배가 넘는 정도로 광활합니다. 현재 국가의 주요 수입원인 남부 나이지리아의 원유가 발견되기 전까지 나라의 경제는 주로 광물자원(금, 철광석, 구리, 주석 등)과 농산물(코코아, 커피, 목화, 야자열매 등)에 의존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국가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3대 종교는 기독교, 이슬람 그리고 소수의 타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나이지리아 전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은 나이지리아의 북부와 서부에 주로 퍼져있습니다. 한편 나이지리아는 전형적인 열대기후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건기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이고 우기는 5월에 시작하여 10월까지 계속됩니다. 농업은 코코넛과 팜유와 바나나 그리고 각종 채소가 풍성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나이저강을 끼고 발달된 나이

지리아는 북쪽은 차드, 서쪽은 니제르를 마주하고 동쪽은 카메룬, 남쪽은 기니와 접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잔인하였던 노예무역이 바로 나이지리아와 접해 있는 가나에서 성행했고 나이지리아도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간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 2. 감리교 선교역사

감리교 선교역사는 1842년 9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영국 감리교 출신 선교사 토머스 버치 프리만이 남부 해안 지역인 버더그리(Badagry)로 상륙하여 전도를 시작하여 서부로 퍼져나갔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들은 1869년 8월에 동부해안지대 아치봉(Archibong) 마을에 상륙하여 전도하였습니다. 이들은 영국 감리교회에서 한 분파로 나간 프리미티프 감리교 출신 선교사들인 윌리엄 로빈슨과 제임스 헨즈였습니다. 이 선교사들에 의해 동부의 복음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교회는 급성장했고 둘로 나뉘었던 교회도 1932년에 통합되어 하나의 감리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독립한 후 1962년에 감리교회도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교회는 위기의 시대를 경험했고 그 위기의 끝은 새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는 사회악과 부패한 정부를 비판하는 데 전적으로 동참했고 군부 통치에 저항했습니다. 선데이 음방 감독이 이 저항운동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국민의 반부패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교회는 사회적

구원을 설교하고 실천합니다. 여러 해 동안 교회는 병원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일에 동참할 뿐 아니라 에이즈 퇴치를 위한 의식화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이지리아의 여러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병원선교와 교도소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감리교회를 이끌고 있는 선데이 음방 감독은 그동안 활발하게 국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감리교협의회(WMC) 회장으로서 2006년 7월 20일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제19차 WMC 대회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음방 감독은 현재 미국을 포함하는 대국들과 나이지리아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당당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舊) 수도 라고스에 감리교본부를 설치하고 남부지역에서의 감리교 위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교인 수 200만 명 이상인 감리교회는 나이지리아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데이 음방 감독은 나이지리아 교회연합회 회장으로 전체 나이지리아 종교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적으로도 중책을 맡아서 종교분쟁을 조정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역할을 감당할 선두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지리아의 국가적 현안은 “지하드 신앙”으로 무장된 호전적이고 위협적인 북부지역의 이슬람 세력을 통제하는 일입니다. 남부는 전통적으로 요루바 부족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기독교가 40%이상 차지하는 곳입니다. 영국 성공회와 가톨릭을 포함하여 감리교회의 교세도 탄탄하여 선교하는 공동체로서 손

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북부 지역으로 올라가면 석유도 나오지 않고 국민소득도 낮아서 상당히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나이지리아 감리교회는 독재정권에 저항하고 사회악을 일소하는 일과 반부패 투쟁에서도 강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반부패추방 운동에도 관여하여 선데이 음방 감독을 선두로 삼고 투명성 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나이지리아 감리교회는 그동안 학교시설을 가지고 선교하였으며, 병원을 세우는 등 의료선교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360만 명에 달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HIV) 환자들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뿐만 아니라 교도소에도 감리교 목사들을 파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의 선교비전은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크고 영적으로 생동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보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영적으로 성숙한 교인들을 양육하고 이웃을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이지리아 감리교회 연회는 이러한 선교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10년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장기 발전 계획과 성령 충만한 사역이 이루어지면 나이지리아 교회의 미래는 매우 희망적입니다. 특히 지하자원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서부연안국 최대의 부국이 될 가능성이 큰 나라입니다. 선교환경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나라입니다.

## 생각을 위한 질문

- 1) 종족 갈등이 심한 나이지리아를 통합하기 위한 전략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 2)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정치, 경제, 사회의 정의실현 방법이 무엇인지 토의해 봅시다.

찬 송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